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7. 4.(목) 09:30 < 7.4.(목) 석간 > 배포 2024. 7. 3.(수)

전력기자재 산업, 신 수출동력으로 키운다

- 전력기자재 올해 수출 162억불, 수주 20조원 목표… '24년 수출품목 10위권 진입 가능
- HD현대일렉트릭 방문, 전력기자재 업계 간담회
- 한전·코트라·무보 「K-그리드 수출지원 MOU」 체결, 무역금융 2.7조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7.4.(목)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하여 전력기자재 업계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제9차 수출현장지원단 활동이자, 에너지 분야 현장방문의 최초 사례이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 '23년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新)수출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올해 수출목표인 수출액 162억 불, 수주액 20조 원을 달성할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0위권에 해당하게 된다.

* 전력기자재 수출액(억불) : '20년 111 → '21년 120 → '22년 138 → '23년 151→ '24년E 162

* '23년 수출액(억불) : 8위선박 218, 10위무선통신기기 155, 11위바이오헬스 133, 13위이차전지 98

안덕근 장관은 HD현대일렉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1MW급 상업용 건물 직류(DC) 배전시스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았다. 이어 한전-코트라-무역보험공사는 「K-그리드 수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국내 에너지 안보에 주력해온 전력 공기업과 수출지원 공기업이 힘을 합쳤다는 의미가 있으며, 에너지 분야 수출산업화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전) 해외 동반진출 생태계 활성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코트라)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 지정, 무역사절단 및 해외마케팅 지원, (무보) 무역보험 공급 확대, 무역금융 지원 등

전력기자재 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정부는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해 2.7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망 관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 유럽, 아세안 시장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전시·상담회 계기 발주처와 매칭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방안을 수립하여 생태계 경쟁력 강화, 수출협의체 결성, 연구개발(R&D) 확대 등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전력기자재 업계 간담회에서는 변압기 3대 기업(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및 중소·중견기업(고려전선, 서진하이텍, 큐비테크) 등이 참여하여 정부 공동 연구개발(R&D), 수출국 반덤핑 조치 관련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등 업계 애로를 제시하였고, 정부는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기업들과 한전, 수출지원기관인 코트라, 무보 등이 힘을 합쳐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자리를 계기로 “K-그리드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효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분야도 우리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030)
		담당자	사무관	김형은	(044-203-4015)
			주무관	김지현	(044-203-403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수출현장지원단 전력기자재 업계 방문 개요

□ **일시** : 7.4.(목), 09:30~11:00(90분)

□ **장소** : HD현대일렉트릭 본사(분당)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무역정책관, 전력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등

○ **(기업)** HD현대일렉트릭 조석 대표, 효성중공업 우태희 대표,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큐비테크 양등석 대표, 고려전선 정용호 대표 등

○ **(공공기관)** 한전(대한전기협회 회장사 겸) 김동철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 **(협회)** 전기산업진흥회 김성칠 부회장, 대한전기협회(회장사: 한전)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09:30~09:35	5′	• 도착 및 이동	1층
09:35~09:47	12′	• 건물 DC 배전시스템 전시관 시찰	1층, 지하1층
09:47~09:52	5′	• 로비 사진촬영	4층 로비
09:52~10:00	8′	• "K-그리드 수출지원" MOU 체결	한전·코트라·무보
10:00~11:00	60′	• 수출현장지원단 업계 간담회	20층 대회의실

참고2 전력기자재 산업 수출입, 수주 현황

* 출처: 전기산업진흥회 등

□ 수출입 현황

○ 미국, 유럽 등 변압기, 전선 등 **해외 수주가 활발해지며 수출 호조세**

< 전력기자재 교역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E)
수출(억불)	126	117	111	120	138	151	162
수입(억불)	116	117	116	141	161	160	170
무역수지(억불)	10	0	△5	△21	△23	△9.8	△8

* MTI 84(전기기기류) 기준 품목

<수출입 현황 그래프('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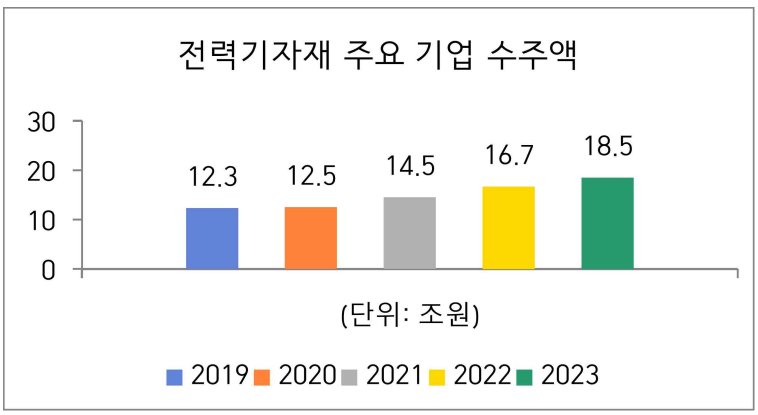


< ※참고: '23년 주요 15대 품목 수출액 (단위: 억불) >

품목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바이오헬스	섬유	이차전지	가전	컴퓨터
수출액	986	709	534	520	457	352	230	218	186	155	133	109	98	79	75

□ 전력기자재 주요 기업 수주 현황

연도	수주실적
2019	12.3조
2020	12.5조
2021	14.5조
2022	16.7조
2023	18.5조
총합 (최근5년)	**74.5조**



참고3 HD현대일렉트릭 건물 DC 배전시스템 개요

1. 추진배경

□ 미래 전력공급 방식인 **직류배전의 핵심기술과 트랙레코드 확보를 위해** 신축 글로벌 R&D센터(GRC)에 LVDC 사업추진

□ 기존 전력망은 교류(AC) 방식이나, **최근 직류(DC) 기반인 재생에너지원·전자기기 등의 확산**으로 직류방식 활용 필요성이 증가

2. 추진경과

□ ('19.4월) **DC배전 3사(HD해양, HD현대, 한전) 기술협력 MOU**체결

□ ('20.10월) **한전과 공동연구** 진행, **건물 에너지효율 10% 향상 목표 수립**

○ 한국전력공사 고창 DC 전력시험센터에서 **DC 선로 연계 검증** 및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통과,** DC 수배전설비 안전성 검증 완료

□ ('23.4월) **빌딩용 직류전원 공급 시스템 상용운전 개시 선포**

⇒ **세계 최초로 1MW급 상업용 빌딩 DC배전 구현 성공**

3. 향후 계획

□ **직류전원 공급 설비와** 건물 內 DC **수배전 설비의 운용 안정화**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통해 **고효율·저탄소 성과 평가 진행 중**

□ 장시간 상업운전 종합 데이터 트랙레코드를 통해 **DC 배전 솔루션 新사업 추진 본격화 예정**

< HD현대 GRC 사옥 >



< 전력변환 및 DC 수배전 설비>

